

2023년 임단협 교섭 시작 노조 “실질임금 후퇴 없어야”

사측 교섭대표 박정훈 사장, 3년 연속 불참 노조 규탄 “책임 방기...강력 유감”



‘임금’은 노동자가 회사를 위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노사관계의 핵심 고려사항이다. 그렇기에 임금협상은 노사 간 공들여 임해야 할 대화이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 가운데에서도 최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런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을 정하는 교섭 테이블에 사용자 측 대표가 내리 3년째 나타나지 않았다. SBS, 우리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경영진은 직접적인 관찰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대상이기에, 그들을 향한 신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뤄지는 약속의 ‘말’과 ‘행동’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 해 동안 불확실성과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한 구성원들에게 사측이 보이는 태도란 이런 것인가? 박정훈 SBS 사장에게 노동자는, 노동조합은 어떤 존재인가?

교섭 요청 23일 만에 사측이 정한 날짜에도 불참 사측 “사장님이 바쁘다”

날짜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차고 넘쳤다. 교섭일 확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10/23)한 이후 사측의 의도적 지연으로 노사간 대화는 내내 공전했다. ‘노동조합이 맞추겠으니 언제든 가능한 날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사장님이 다른 일정들로 바쁘다’ 뿐이었다. 지난해, 지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고의적 교섭 지연이 연례행사가 된 것이다. 11월 6일, 결국 노동조합은 고의적 교섭 지연과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교섭일 확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그제야 사측은 가능한 날짜(11/15)를 제시했다. 그렇게 지난 15일, 노조의 교섭 요구 23일 만에 어렵사리 첫 협상이 시작됐지만 박정훈 SBS 사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조합 “실질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단축(주 4.5일제, 안식월 등) 요구”

이날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 교섭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경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임금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섭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정형택 전국언론노동조합SBS 본부장도 “교섭대표가 가장 큰 임단협 협상에 불참한 게 올해로 3년째이다. 교섭대표로서 책임 방기이며, 사감(私感)을 이유로 불참한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노조 차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사업장이 경쟁사 대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기반에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실질임금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 실질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 교섭대표로 위임받은 방문신 부사장은 “타 지상파의 경우, 적자 또는 적자에 준하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임단협에서 실질임금 상승과 더불어 근로 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것이다. 경쟁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 4.5일제,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식월 제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또 우리 일터에 도입된 지 9년이 되는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상(보상)조치를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성과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향후 협상에 치밀하게 대응할 것이다.

“신입 조합원을 소개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세요. 신입 조합원님들,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곽상운
라디오센터
라디오1CP

안녕하세요. 라디오센터 신입사원 곽상운입니다. 제게 라디오라는 꿈을 심어주었던 곳에서 직접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방송사에 부끄럽지 않은 일원으로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예린
라디오센터
라디오1CP

안녕하세요. 라디오센터에서 일하게 된 신입 조합원 김예린입니다! 꿈꾸던 회사에서 멋진 선배님들과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선배님들처럼 저도 SBS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보도본부
시민사회팀

안녕하십니까. 23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자로 입사한 김진우입니다. 꿈꾸던 기자가 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끝까지 멀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신입 기자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원
보도본부
시민사회팀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시민사회팀에 27기 신입 기자로 입사하게 된 김태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떨리지만, SBS 노조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겨 안심이 됩니다. 기자로서,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산
시사교양본부
동물농장제작
사업팀

어렸을 때부터 교양 PD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 가까워진 것 같아 행복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선물하는 교양 PD가 되겠습니다.



이동희
시사교양본부
교양2CP

시사교양본부 신입 PD 이동희입니다. 어릴 적부터 SBS의 콘텐츠들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을 바라보며 자라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선배님들께서 닦아오신 SBS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수
시사교양본부
교양4CP

시사교양본부 신입PD 이문수입니다. SBS의 콘텐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떨리기도 합니다. 항상 신입의 마음을 간직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PD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도 뜻에 함께하며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공영방송의 정치독립과 이동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 주세요



100만 서명 참여 링크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10대 사무처장이자 PD협회 회원인 시사교양본부 임기현 동지가 현재 힘든 투병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과 정성이 모이고 있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응원과 힘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11월 30일)까지,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음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285-910012-19905
예금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